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과 전북의 대응 :

전주는 동아시아문화도시, 13개 시군은 문화도시,
읍면동은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하자!

Contents

1. 문화부문 핵심 국정과제 : 문화주도 지역발전
2. 전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준비
3. 전주 외 시군, 신규 문화도시 지정 준비
4. 읍면동,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
5. 정책 제언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장 세 길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과 전복의 대응 :

전주는 동아시아문화도시,
13개 시군은 문화도시,
읍면동은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하세



- 1. 문화부문 핵심 국정과제 : 문화주도 지역발전
 - 1)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문화와 발전' 4
 - 2)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 4
- 2. 전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준비
 - 1)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경과 5
 - 2)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모집 공고 7
 - 3) 전라북도 역량과 대응방향 8
- 3. 전주 외 13시군, 신규 문화도시 지정 준비
 - 1) 정부의 문화도시 조성정책 추진방향 10
 - 2)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11
- 4. 읍면동,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
 - 1) 정부 추진동향 12
 - 2) 지역주민과 예술인 연계된 신개념 문화공동체 조사, 발굴 13
 - 3) 대응전략 예시 : 한문화마을(K-Culture Village) 조성 13
- 5. 정책 제언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3월 21일 vol.103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과 전북의 대응: 전주는 동아시아문화도시, 13개 시군은 문화도시, 읍면동은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하자!

요 약

- 새 정부의 문화부문 국정과제에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위한 전략이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 실천과제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계획 마련
-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14년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첫 번째 문화도시의 후보도시를 2013년에 선정할 계획
-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주도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장소단위 사업으로서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도시단위 사업으로서 새로운 '문화도시'-국제단위 사업으로서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구상
- 전북은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하는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주도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지역으로서 새로운 문화주도 전략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첫째,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갖춘 전주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전주시 외 13개 시군은 지역문화진흥법(안)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24여개 읍면동은 주민·예술인(무형문화·현대예술)이 주도하는 문화마을 추진을 준비
- 둘째,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타 시도에 앞서 있어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주는 한문화(K-Culture)의 거점이자 국제문화교류 실적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충분.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제안서 작성 대응
- 셋째, 신규 문화도시는 시군별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의 분야 중 타 시도보다 경쟁력 높은 테마를 선정, 조성 계획 수립.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명시된 내용에 맞춰 수립
- 넷째, 문화마을은 장소단위 사업으로 생활공동체 단위의 자원조사 필요. 문화자원 지표별 현황 토대로 경쟁력 높은 마을을 선정하되, 주민과 예술인(무형문화기능보유자·현대예술가)이 함께 신개념 문화공동체를 구축한 지역 발굴, 우선 추진
- 다섯째,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이자 문화주도 지역발전의 결과물로서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주도의 문화도시·문화마을추진체계 또는 포럼 운영 필요



1. 문화부문 핵심 국정과제 : 문화주도 지역발전

1)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문화와 발전'

- 유엔 총회, 주요 결의안으로 '문화와 발전' 의제 채택
 -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는 '문화와 발전' 의제를 주요 결의안(A/RES/65/166, A/RES/66/442)으로 채택. 유엔은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와 정보공유, 정책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강화 등 촉구
 - 2015년에 유엔 주도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개최될 예정
 - 문화와 발전 의제는 산업화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은 단순한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의미 추구. 세계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발전 방식을 성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존중, 문화다양성의 실현 등 보편적 가치에 관심
- 문화주도 지역개발의 확산 : 문화도시, 창조도시, 창의도시
 - 1985년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 열풍을 촉발
 - 유럽문화수도 지정도시들은 1985~2003년 간 관광객이 평균 12% 증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큰 효과 발생.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상승
 -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2008년 선정)은 2008년 한해 동안 7,000개 이상의 행사와 공연을 유치, 전년 대비 30% 증가한 1,500만 명이 방문해 8억 파운드(1조6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 1985년 아테네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54개의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지정 예정이며, 미주 문화도시(1998), 아랍문화도시(2000), 동아시아문화도시(2014) 등 대륙별로 문화주도의 도시조성 사업이 추진되거나 구상 중
 - 문화수도 사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로 확대
 - 문학/영화/공예 · 민속예술/디자인/미디어예술/미식학/음악 7개 영역 중심으로 도시발전 전략 추구하는 도시 선정하고, 도시문화자산 증진과 창의산업 육성 : 전주(음식), 서울(디자인), 이천(공예) 선정

2)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도시 · 문화마을 전략

- 지역 문화격차 해소 위한 전략으로 문화도시 · 문화마을 조성 수립
 - 문화융성 4대 핵심과제 :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 ·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 세 번째 핵심과제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계획 포함
- 기존의 문화도시 전략은 5개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특히 유엔총회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가 채택될 정도로 문화중심 지역개발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문화주도의 지역개발 전략은 걸음마 단계
 - 기존의 문화주도 지역개발은 문화관광 전략에 치중되거나 일부 구도심의 재생사업에 국한. 문화의 본래적 가치인 공동체 지향, 문화 다양성 보장 등은 미흡
- 새 정부에서는 문화마을 조성, 문화도시 추가 지정, 한중일+아세안(ASEAN)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문화주도 지역발전 본격화

문화마을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이 단순한 도심공간 개발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지역문화진흥법) 마련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2. 전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준비

1)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2012.1) 발표

- 전략적 문화교류 활성화 중 쌍방향교류 활성화 부문에 동아시아예술창조도시 포함

- (쌍방향교류 활성화)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험한류 차단 및 한류의 지속경쟁력 확보
 - (아시아 국가와 협력) 중국, 일본 등 동북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전통문화 교류 협력체계 구축
 - ※동아시아예술창조도시 선정, 순회축제 개최검토 및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개최 (2013.08)

■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2012.5, 중국 상해)

- 목적 :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활성화방안 논의 및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석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국 문화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 의제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문화협력 액션플랜(2012~2014)

○ 문화협력 액션플랜

- ①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 ② 한중일(동아시아) 예술제
- ③ 한중일 정상회담 연계, 문화행사 정례화
- ④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협력 추진
- ⑤ 문화산업 교류협력 강화
- ⑥ 문화예술교육 교류협력 강화
- ⑦ 지적재산권 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



○ 당시 언론보도

- 문화부 관계자는 "중소도시 가운데 문화적 특성이 강한 곳이 후보가 될 것"이라며 "우선 2014년까지 각국이 한 곳씩을 지정한 뒤 순차적으로 1년에 한 곳씩 각 국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 (이데일리 2012.05.05참조).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개요

- 2007.9.19~21 : 제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중국 남통)
- 2008.12.24~26 :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한국 제주)
- 2011.1.18~20 : 제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일본 나라현)
- 2012.5.4~6 :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중국 상해)
- 2013 :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순서 상 한국 개최 : 도시 미정)

- 이명박 전 대통령,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ASEAN)+3(한중일) 파트너십 선언'
 - 아세안+한중일 정상들은 아세안과 한중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개국의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하기로 합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연구 수행(정책리포트)
-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준비 중
 - 결정사항 : 2014년은 한중일에서 1개 도시씩 총 3개 도시 선정. 2015년 이후에는 매년 3개국 중에서 1개국의 1개 도시만 선정하되, 2015년 중국, 2016년 한국, 2017년 일본의 순서로 선정(2018년 이후도 같은 순으로 매년 1개 도시 지정)
- 이상의 경과에 따르면, 3개국(한중일) 대상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되 점차 아세안 +3(한중일)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 또한, 전통문화적 특성이 강한 중소도시(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인터뷰)를 후보지역으로 선정
- 하지만 최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지역의 광역도시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으나 대체로 광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 이미 모집공고를 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대상지역에 포함. 대상영역도 일본 사례를 비쳐볼 때 현대예술부터 전통문화 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¹⁾

http://www.bunka.go.jp/kokusaibunka/east_asia_bosyu/index.html 2014년東アジア文化都市の募集について 참조. 이하 일본 사례는 문화청의 모집 공고문을 번역, 요약 정리한 내용

2)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한중일 3개국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현대예술부터 전통문화, 생활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 문화예술 · 창조산업 · 관광진흥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사업 개시년도 : 2014년
- 선정기준 : 한국 · 중국 · 동아시아국가와의 문화교류, 문화도시 · 창조도시로서 시책 실적 및 향후 계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등 고려
- 사업내용 :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1년 간 동아시아 예술제의 개최행사 및 폐회행사, 한중일 3개국 공동사업(공동제작 공연 및 전람회 등), 핵심기간(1개월 정도) 동안 집중적인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추진
- 모집 대상 : 시구정촌(市区町村)
- 모집 기간 : 2013년 2월 15일(금)~3월 15일(금)
- 일본정부 지원계획 : 진행사업 중 문화청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경비 일부 부담

■ 문화도시 선정 이후의 사업구상 예시

-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알리는 개최행사
 - 한중일 3국의 주요인사, 문화인, 그리고 많은 국민이 참가하는 개막행사
 - 개최에 맞추어 문화 관련 사업을 도시 각 처에서 실시
- 미술, 무대예술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핵심(코어)기간 설정
 -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등 대규모 예술제 개최
 - 저명한 예술가가 출연하는 무대예술공연 실시
 - 일본의 전통공예품이나 식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견본시 개최
- 한중 예술가가 일본에 체류하여 제작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체류 성과를 발표하는 전람회 · 공연 등
 - 한중일 예술가 팀에 의한 일본 각 지역 순회 제작
- 동아시아 여러 도시의 미래와 문화예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개최
 - 문화청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공생회의' 개최
 -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 창조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진행시키는 국제회의 개최
-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여 참가하는 각종 프로그램
 -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술, 문화에 관한 강좌나 워크숍
 -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 고령자, 난치병에 의한 장기입원환자의 사회참가 촉진 사업
- 청소년 교류 촉진을 주안으로 한 문화관련 사업
 -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 · 운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 예술계 대학 학생의 교류 프로그램
- 다음 해의 문화도시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폐막행사
- 보고서 작성 및 사업실시 효과에 관련된 중기적인 조사연구 실시

3) 전라북도 역량과 대응방향

■ 우리나라 문화도시 선정 전망²⁾

- (사업 명칭)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동아시아 예술창조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 창조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예상
- (대상 도시) 당초 한국과 일본은 중소도시를 염두에 뒀으나, 중국이 도시규모의 차이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짐. 수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중일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선택. 실제로 일본 문화청에 전화문의한 결과, 오사카 등 대도시를 비롯해 모든 도시가 공모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시 포함여부가 쟁점이라고는 하나 일본 모집대상, 중국의 부정적 의견, 첫 번째 도시의 상징성과 향후 역할 등으로 비쳐볼 때 대도시를 포함해서 공모할 것으로 예상
- (대상 영역) 당초 계획은 전통문화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었으나, 현대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또는 창조)산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
- (선정 기준) 정식 공모 이전까지 선정 기준이 비공개라 불확실하나, 관계자 설명, 일본의 모집공고 등을 참조해보면, 문화도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제문화교류 역량이며, 사업추진체계 구축역량, 지역문화발전 기여정도, 국가균형발전 측면 등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아래 내용은 일본 문화청이 모집공고 시 제시한 주요 심사방향

| 구분 | 주요성사 내용 | |
|-------------------|----------|---|
| 문화도시로서의 추진실적 및 역량 | 비전 및 계획 | • 문화중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과 계획 수립 여부 |
| | 문화·창조 정책 | • 창조성 바탕의 문화진흥·산업진흥·관광진흥 정책 실적 |
| | 국제교류 실적 | • 동아시아 교류 실적 및 교류 행사 실적 •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나 회의 개최실적 및 지속성 여부 • 국내외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 관련 네트워크 참여 여부 및 해당도시 간 교류 실적 |
| 실시체계 제휴협력체계 | 민관협력체계 | • 지자체, 민간(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추진 계획 •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추진 계획 |
| 문화도시로서의 사업계획 | 사업목적과 계획 | • 동아시아문화도시 목적에 부합한 사업목적 및 계획 여부 • 일회성 효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여부 |
| | 전문인력 참여 | • 창조성 풍부한 예술감독, 디렉터, 코디네이터 배치 등 창조적 인재 육성 계획 포함 여부 |
| | 문화민주주의 | • 지역주민의 창조성 발현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참여 사업 기획 여부 |
| | 국제교류사업 | • 국가·문화도시 간 시민교류, 청소년교류 사업 기획 여부 |
| 홍보 및 평가 | 홍보계획 | • 홍보계획 및 미디어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 평가계획 | • 교육기관 제휴, 발전방안 모색하는 평가시스템 계획 여부 |

2) 명확한 계획 및 선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나, 그럴 경우 선정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 연구자가 여러 자료(일본 공고문, 정부 관계자 인터뷰) 참조해 정리

- (주요 사업) 선정된 문화도시에서 동아시아 예술제가 열리며, 매년 문화의달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 일본 사례를 보면 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보조. 해당 도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사무국을 구성해야 하며, 관련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일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 : 동아시아 예술제, 1개월 이상의 공연예술축제, 한중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회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연구 등
- 전통문화도시 전주,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요구하는 역량 충분
 -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우리나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돋움. 문화중심의 구도심 재생의 대표지역 한옥마을(2012년 국내외 관광객 500만), 한스타일사업의 핵심거점지역(한지, 한식, 한옥), 민간전문인력 주도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타 문화도시와 차별화
 - 문화 관련 국제네트워크 중심이자, 국제행사 및 문화교류 지속 추진
 -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정보·네트워크), 국립무형유산원,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축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한국음식관광축제 등
 -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 창조산업이 핵심시책으로 추진 중
 - 국내 유일의 한지산업지원센터, 전통문화산업클러스터, 한스타일특구, K-Food 콤플렉스, 천년한지문화산업권, 문화산업지구, 국제음식조리학교, 게임고등학교 등
 - 2014년까지 3,233억원(국비 1,390억원, 지방비 1,302억원, 민자유치 541억원)이 투입돼 전통문화산업 연구개발, 문화체험, 산업진흥, 인력양성 등 15개 특성화 사업 추진 예정
- 전북도-전주시-민간 공동추진위 구성, 동아시아문화도시 준비
 - 지자체 신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가 선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주시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므로 전북도-전주시의 공조체계 필요
 - 선정기준에 민간 전문인력 참여가 포함되어 있듯이 문화도시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 특히 창의적 민간문화인력의 참여에 달려 있음. 민(문화단체, 전문가, 교육기관)-관(전북도·전주시) 공동추진위를 구성해 공모 준비
- 공모 준비기간 부족, 제안서 작성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신입 장관 인선이 늦어져 공모절차가 다소 미뤄졌으나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준비기간은 길어야 1개월에 불과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 작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것처럼, 민관공동추진위를 구성하되 공모제안서는 외부전문기관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의뢰, 작성

- 전주 경쟁력 충분. 2014년 문화도시 선정 불발 시, 2016년 재추진
 - 첫 번째 문화도시는 2013년 각 국가별 후보도시 선정 후 2014년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 동아시아 예술제 순회 개최. 2015년부터는 3개국에서 1개 도시만 선정하되, 중국(2015년)-한국(2016년)-일본(2017년) 순으로 선정
 - 일본은 요코하마, 고베 등에서 관심.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기반구축 측면에서 타 시도에 앞서 있어 문화도시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전망. 하지만 전주는 한문화(K-Culture)의 거점이자 민관협력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실적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충분
 - 2014년 첫 번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2014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재추진

3. 전주 외 13시군, 신규 문화도시 지정 준비

1) 정부의 문화도시 조성정책 추진방향

- 새 정부의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 문화융성 위한 국정과제 중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계획 포함

-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문화인력·프로그램 거점으로 육성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중기재정계획(2014~2017)에 기반영
-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 지역문화진흥법(안)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법 제정에 집중
 - 문화도시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도시포럼 발족, 운영
 -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광특예산으로 지원되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 구상 중
 - 도시경관, 도시브랜드 전략 등이 총망라되는 개념으로 문화도시 사업 구상 중
-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2012.6.19)
 - 도중환의원 발의법안도 문화도시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병석의원 발의법안과 동일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선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선정희망년도 2년 전까지 선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 13개 시군별 특화된 테마 설정

- "더 이상의 한옥마을은 없다". 각 지역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주도 지역발전 전략 필요. 한옥마을 같은 형식의 공간개발은 성공가능성 희박
- 문화자원을 조사해 문화도시 희망하는 도내 시군 중 타 시도보다 경쟁력 높은 테마 설정
 - 시군별 자체적 테마설정도 가능하나, 중복선정을 피하기 위해 도 자체 선정위원회(민간 주도) 구성

■ 희망도시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문화도시 지정분야별 특성화 계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방안 등

■ 문화도시 지정과 무관하게 도-시군 자체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부가 아닌 결과
-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 취지이므로 문화도시 지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4. 읍면동,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

1) 정부 추진동향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전통문화브랜드사업

○ 문화마을 사업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사업이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선정사업

- 우수한 문화브랜드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전통문화브랜드 사업들이 문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향후 매년 정례적으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사람과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문화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

○ 2012년 선정사업은 성남 문화클럽과 부산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지역주민과 예술인의 공동활동을 통한 도심재생 및 문화브랜드 구축의 대표 사례로 각광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³⁾

- 레지던시 작가들이 부산시 산복도로인 사하구 감천2동에 감천 문화마을 조성

- 예술문화단체 '아트팩토리인 다대포'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콘텐츠융합형관광협력사업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당선돼 '꿈을 꾸는 부산의 맞추피추' 사업 현재까지 진행

- '2010 미로미로프로젝트'는 '빈 집 프로젝트'와 '골목길 프로젝트'로 구성. 6개의 빈집에 작품을 설치하여 빈집의 어둡고 무서움에서 벗어나 방문객과 마을 주민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골목길 프로젝트'는 방문객이 마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화살표를 벽면에 그려 길안내 및 화사한 마을 분위기 연출

- 2012년 10월, 사하구가 주최하고 감천문화마을이 주관하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개최. 미로미로음악회, 추억의 골목길, 문화예술·먹거리 장터, 창작·전통문화 체험, 어린이 그림전시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생활문화 중심의 마을단위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일환으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한문화마을, 10대 전통문화촌 등의 사업을 계획했으나 현재 미 추진

○ 한문화마을은 행복청과 협의해 세종시 한문화마을을 전시·체험·숙박·교육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한 한국형 모델시대로 조성하는 계획 수립. 현재는 사업방향을 전환해 세종시의 한문화 기반 도시경관 사업으로 구상 중

○ 10대 전통문화촌은 10대 대표마을을 선정하여 관광·역사·체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문화관광의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의도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참조

- 문화도시의 축소판, 장소단위 문화주도 지역발전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추진
 - 문화마을 조성계획의 연구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
 -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활용·창조해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2) 지역주민과 예술인 연계된 신개념 문화공동체 조사, 발굴

- 시군, 읍면동별 지역문화자원의 지표별 조사. 문화자원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마을 가능성 탐색
- 현재 전라북도 내에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가 함께 참여해 내발적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신개념 지역문화공동체가 구축되어 있는 마을 조사, 발굴
- 발굴된 마을별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예술 특성화를 위한 지역예술인 작업여건 지원, 지역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지역공동체 문화성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
- 향후 문화마을 선정·지원추진 시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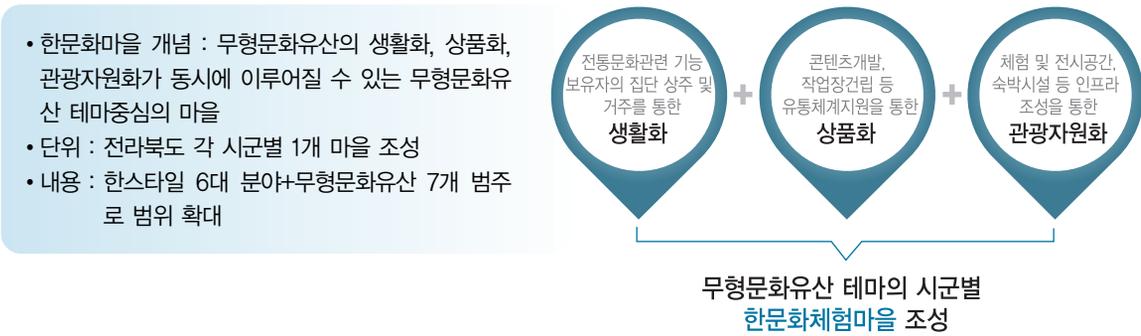
3) 대응전략 예시 : 한문화마을(K-Culture Village) 조성

- 무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마을 조성
 - 기존의 문화주도 지역개발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이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산업의 원형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 집중. 새 정부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을 강조하는 국정과제 수립
 -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활용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 중

지역별 무형문화유산 보유 현황

| 구분 | 전북 | 경기 | 제주 | 경북 | 경남 | 강원 | 서울 |
|---------|-------|-------|-------|-------|-------|-------|-------|
| 종목 수(개) | 3,724 | 3,170 | 3,066 | 2,715 | 2,671 | 2,259 | 2,157 |

-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마을 형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미 활발하게 추진 중. 이러한 사업을 계승하는 종합적 전략으로 무형문화유산 중심의 한문화마을 추진
- 한문화마을의 개념
 - 한문화마을이란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 및 관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생활화, 상품화,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마을단위 전통문화 체험 공간
 - 생활화 : 기능 보유자의 집단 상주를 통해 전승 및 교육활동 지원
 - 상품화 : 콘텐츠개발, 작업장 건립, 경영컨설팅, 디자인개발, 유통체계지원
 - 관광자원화 : 문화재보호법 관련 민속마을 지정, 체험 및 숙박 관광인프라 조성



■ 유사사례

○ 완주군의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 마을'

- 마을개요 : 할머니 다듬이 소리를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
- 사업기간 : 2011~2013
- 사업예산 : 4억원(행정안전부 예산)
- 사업내용 : 년별퍼포먼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자원 계승, 일자리창출, 관광사업 활성화



○ 남원시의 '짚두레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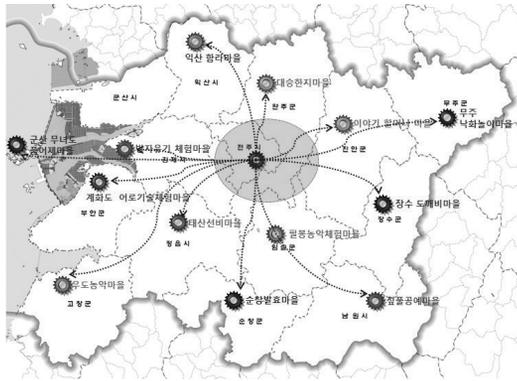
- 사업개요 : 노인들의 짚풀공예작품 통해 짚풀공예 명품마을로 탄생
- 사업기간 : 2011~2013
- 지원예산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매년 5천만원 지원
- 사업효과 : 36개상 수상, 짚풀공예체험관 운영, 짚풀소재 생산, 전국단위 행사초청과 체험진행 등



■ 무형문화유산 중심 한문화마을 조성 예시

- 한문화마을 테마유형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 따라 세대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분류에 따라 후보지역 예시
- 무형문화유산 분류는 형태가 있어 수리·보수가 가능한 유형문화와는 달리 민족의 삶의 모습 전체가 모두 해당될 수 있도록 큰 개념으로 분류
 - 전통공연·예술, 공예·미술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분류

○ 한문화마을은 전주 제외한 13개 시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선정해 구상



| 구분 | 보유 무형문화유산 |
|--------------------|-----------|
| 전통적 공연·예술 | 고창 우도농악 |
| | 임실 필봉농악 |
| | 정읍 샘깊은소리회 |
| 공예·미술 등의 전통기술 | 남원 직물공예 |
| | 고창 고창자기 |
| | 김제 방자유기 |
| 한의학, 농경·어로 등의 전통지식 | 부안 계화도 |
| | 어로기술 |
| 구전전통 및 표현 | 장수 도깨비마을 |
| | 진안 이야기할머니 |
| 의식주, 전통적 생활관습 | 순창 발효음식 |
| | 완주 대승한지마을 |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정읍 태산선비문화 |
| | 군산 무녀도풍어제 |
| 전통 놀이·축제, 기예·무예 | 무주 낙화놀이 |

5. 정책 제언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마을-문화도시-동아시아문화도시의 단위별 문화주도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전주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전주시 외 13개 시군은 지역문화진흥법(안)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24개 읍면동은 주민·예술인(무형문화·현대예술)이 주도하는 문화마을 추진을 준비
-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타 시도에 앞서 있어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주는 한문화(K-Culture)의 거점이자 국제문화교류 실적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충분.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외부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제안서 작성. 또한, 2014년 선정이 안되더라도 2016년 두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재추진
- 신규 문화도시는 시군별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의 분야 중 타 시도보다 경쟁력 높은 테마를 선정, 조성 계획 수립.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명시된 내용에 맞춰 수립
- 문화마을은 장소단위 사업으로 생활공동체 단위의 문화자원 조사가 필요. 문화자원 지표별 현황을 토대로 경쟁력 높은 마을을 선정하되, 지역주민과 예술인(무형문화기능보유자, 현대예술가)이 함께 신개념 문화공동체가 구축된 지역중심의 우선 발굴해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이자 문화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결과물로서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문화도시·문화마을추진체계 또는 포럼 구성, 운영 필요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죽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